

## 사설

## 신뢰없는 학생자치 있을 수 없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이 봄 축제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은 채로 남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논란 이후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총학생회장이 탄핵 부결 이후 그대로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유례없는 상황에 학생 사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탄핵 투표 하루 전날, 문정식 총학생회장은 개인 SNS에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된다면 문제가 됐던 해당 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논의할 공적인 회의체를 꾸려 상황에 대한 건설적인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 당시의 의지는 엿보기 힘들다. 당장 입장문에 밝혔던, 공적인 회의체는 물론이고 임기를 이어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해명조차 없다. 우리신문의 연락조차 수차례 외면하고 있다.

만약 총학생회장이 학생사회와

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없이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면, 남은 임기 동안 해나갈 여러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학생회 전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매듭 없이는 앞으로의 학생자치에 대한 무관심, 불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 회장의 상식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문정식 총학생회장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것은 자진 사퇴를 이야기했다가 탄핵 부결 이후 임기를 이어가겠다고 한 이유다. 2/3 이상 투표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탄핵 투표에서 90%라는 찬성 득표율이 나온 상황에서 학생 대표자의 정당성 문제는 언제든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는 사안이다. 병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조사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업체와의 부정거래에 관한 의혹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이뤄질 수 없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라도 알릴 의무가 있다. 총학생회장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애초 탄핵 절차에 대한 중운위의 판단에 아쉬운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퇴가 아닌, 탄핵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하고 부결될 상황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또 학생 총투표 결과를 그저 받아들이겠다는 일부 중운위원의 말과 더불어, 탄핵 투표 이후 잠잠한 중운위 전체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이를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중운위는

총학생회장의 의혹을 학생들이 물을 수 있는 공적담론의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역시 필수적이다. 사실 총학의 비리 의혹이 발생한 것 역시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번 사태를 끝맺음 하는 주체는 학생사회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자치기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견제를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문 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따라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끝없는 비판 속에 결국 좌초하고 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구성원의 신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소통’이 관건이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중운위의 의지와 학생들의 관심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세시봉

## 제로열풍비상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다. 바로 ‘제로칼로리’ 제품이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달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칼로리 탄산음료 섭취량은 2019년에 비해 2021년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료 전체 섭취량에는 큰 변화 없이 음료류를 통한 당류 섭취는 오히려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제로칼로리 식품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제로’ 열풍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제로’의 핵심은 설탕이 아닌 인공감미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국내 식음료업계는 설탕보다 200배 달지만, 칼로리가 낮고 가격도 싼 ‘아스파탐’이라는 인공감미료를 주로 사용해 왔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제로 콜라와 사이다는 물론 각종 식음료에 쓰인 것을 보면 아스파탐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이달 14일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할 것이 알려지자, ‘제로’ 열풍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소비자와 식료품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들은 제로칼로리 식품 섭취를 꺼리고, 식음료업계에서는 아스파탐을 대신할 감미료를 찾거나 아스파탐의 위험성을 해명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사실 2B군은 인체에 대한 연구와 동물 실험 자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 같은 등급에는 흔히 즐겨 먹는 김치, 피클과 같은 절임 채소류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알로에 베라 등이 있다. 또한, 식약처는 체중이 60kg인 성인이 하루에 다이어트 콜라 55캔 이상을 마셔야 일일섭취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안심해도 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섭취하는 ‘양’과 접촉하는 ‘빈도수’라고 말한다. 발암물질이라는 이름에 주목하기보다 앞으로 계속될 인공감미료에 대한 연구와 발표될 자료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생활의 일부가 된 인공감미료에 대해 불안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함께할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예비군 학습권 보장

## 권리의 부재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올해도 예비군 학습권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은 작년부턴다. 당시는 코로나로 축소됐던 예비군훈련이 다시 대면으로 전환되던 때다. 암묵적으로 넘어가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캠퍼스를 넘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몇 년 사이 한국 사회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바라보는 태도가 더욱 민감해지고 성숙해진 결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비군 수업자료 제공’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한 학생회 관계자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다. 아무리 강의 녹화를 추진해도 일부 교수의 불허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비군 학습권 보장 정도는 학

과·수업 별로 다르다. 학생마다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한 다전공생은 제2전공 수업에서 혼자만 훈련 일자가 달라 출석은 인정받았지만, 놓친 수업 자료까지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했다. 학과별로는 남초보다 여초 학과에서 예비군 학습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온전한 ‘예비군 학습권’ 보장 논의가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했음에도 출석을 인정하는 것은 이로 인한 성적 불이익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놓친 수업 내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출석을 인정하는 것만큼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아닌 점은 아쉽다. 예비군의 성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선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업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군 학습권 보장은 일부를 위한 논의가 아니다. 이를 학생 모두를 위한 학습권 보장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예비군뿐만 아니라 모두가 학습권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공정의 확풍이 정착될 것이다.



만평 학습권은 어디에

경희대학교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군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동건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먼디